

##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사적 발자취 조명을 위한 음악교육 원로학자 인터뷰

### An Interview with Senior Scholars in Music Education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Footprints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김 기 수\*

Gi-Su Kim

**초록** 한국음악교육학회는 1956년에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교육학회로서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우리나라 음악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며 발전해 왔다. 이 학회의 발전사는 연혁에 잘 정리되어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사건의 계기 등을 밝히는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회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학회 발전에 공헌한 3명의 원로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뒷안길에 숨겨진 음악교육학회의 생생한 발자취를 밝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학회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할, 그리고 내일의 음악교육을 위한 그들의 바람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한국음악교육학회의 귀중한 사료 뿐 아니라 미래의 음악교육을 열어가는 혜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 원로학자, 음악교육, 한국음악교육사

**Abstract**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s the first association of music education and the best academic society of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56.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is association have been developed with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in Korea. The history of the society is well organized in the series, but it is hard to find data that shed light on the period situation and the motives of the event. So, in this study, this study interviewed three senior scholars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o follow its footsteps. Not only did this interview reveal the vivid footsteps hidden in the historical backtrack, but it also listened to the mission and role of the society, and their desire for tomorrow's music education. Thus, this research will not only serve as be a valuable source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but also a great idea to open up future music education.

**Key words:**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senior scholars in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gisu1027@cue.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2.01>

## I. 들어가는 말

한국음악교육학회<sup>1)</sup>는 1956년 창립 이래 어느덧 2016년 부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이 세월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처럼,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뀌는 오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우리학회는 많은 변모를 해왔다. 학회의 창립이 이루어진 1956년은 시대적으로 6.25 한국전쟁 직후라 전쟁폐허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었다. 그런 중에도 몇몇의 학자 및 교육자들은 우리학회의 전신인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발기하였다. 1960년대 우리학회는 격동기의 어려운 정치적·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음악교육을 선도하였고, 197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맞물리는 교육의 실태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 선진화된 음악교육 및 방법을 소개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의 시기와 90년대의 우리학회는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모에 발맞추어 풍성한 연구와 학회활동으로 국제적 수준의 학회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리고 2000년대 학회는 미래의 음악교육을 준비하는 새로운 음악교육의 틀과 내용의 여러 방안을 간구하며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학회는 우리나라 음악교육과 관련한 학회 중에서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60여년의 긴 역사만큼, 우리학회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정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며<sup>2)</sup>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을 제안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학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60년 역사를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잘 정리된 학회연혁은 발전사의 명료함을 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혁의 사건이 발발한 시대적 상황과 계기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회연혁의 정도로는 사건의 배후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폭넓은 학회의 발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자료가 요구된다. 곧 우리학회 발전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표면적인 내용을 지나 그 이면의 심층적인 내용의 자료를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학회 발전사의 심층적인 내용의 자료 확보를 위해 현존하는 원로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역사적 증언을 듣고자 하였다. 즉 학회 연혁의 사건들이

1) 본 연구가 한국음악교육학회의 발전사를 소개하는 연구이므로 이후부터 소제목, 표, 인용 등을 제외하고서는 가급적 ‘한국음악교육학회’를 ‘우리학회’로 기술함.

2) 우리학회 제2대 회장이면서 동시에 문교부 편수관(현재의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정도에 해당)이었던 정세문은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며 우리학회가 이 일을 담당하도록 이끌었다. 이것은 이후의 국가 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도 우리학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된다.

왜 일어났는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러한 사건을 일으켜야 했는지 등에 관한 역사적 발자취 말이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학회의 선구자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작고하였다. 그런 만큼,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우리학회 발전사의 사건과 활약 등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을 담아야 할 긴요함은 더욱 커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학회 원로학자들과의 인터뷰는 분명 지난 날 학회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우리학회의 귀중한 사료(史料)로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학회와 우리나라 음악교육을 성찰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 II. 한국음악교육학회의 태동과 연혁

### 1. 한국음악교육학회의 태동

한국음악교육사에서 알 수 있듯이,<sup>3)</sup> 서양음악은 개화기부터 시작된다.<sup>4)</sup> 물론 이때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병행되었다. 하지만, 개화기부터 1950년대까지 사회적 변모에 비추어 볼 때, 국악은 쇠퇴하는 국면을 맞고 양악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신문물과 학문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의 과도기에서 전통의 아름다움보다는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과 신문화를 형성하려는 자연스런 경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 양악이 우리나라 음악교육사의 흐름에 크게 반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학회는 이런 한국음악교육사의 흐름 속에서 6.25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서양의 음악을 전공한 교육자들

3) “서양음악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1780년 청나라 사절단으로 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풍금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암은 그곳에 유입되어 있던 서양악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민원득(1966), 개화기의 음악교육.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80주년 기념 논문집9. 9-99: Ju, et al., 2018, 17 재인용).

4) “1895년에는 관립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소학교 교원양성을 위한 관립 사범학교도 세워졌다”(Min, et al., 2010, 41). “1909년에는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한국 최초의 사설 음악교육기관인 조양구락부가 설립되었다. 발기회는 그 목적을 “구가악(舊歌樂)을 전습(傳習)하여 신악(新樂)을 발전하기로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이흥수(1990), 22). 물론, 여기서 구가악은 조선시대의 음악을 일컫고, 신악은 서양음악이 아닌 새로운 우리의 음악, 즉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을 일컫는다. “1911년 조양구락부는 발전적인 해산과 더불어 조선정악전습소로 재출범하고, …[중략]… 아울러 조선정악전습소는 서양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을 가르친 최초의 음악교육기관이다”(Chang, 1986, 490). 여기서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염광섭(풍금), 하대홍(성악), 한화진(악리), 홍영후(사현금) 등이 배출되었다.

이 중심이 되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교육연구회였다. 이흥수(2006: 1)는 “선배들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음악교육학회는 1956년 8월, 현제명(초대) 회장, 김성태 사무국장, 정세문 총무, 한규동 연구부장 등이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창립하고, 제1회 전국음악교사 강습회를 개최함으로써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에는 회원의 수도 적고 ‘음악교육’이라는 용어도 생소한 상태였지만, 해마다 회보 ‘음악교육’ 발간, ‘청소년음악회’ 개최,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주관(교총 주최), ‘음악교사강습회’ 개최,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가입/참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폈습니다”라고 회고한다. 이는 우리학회가 창립초기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어느 단체를 무론하고 태동기의 활약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거나 범위가 크지 않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더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6. 25라는 3년의 한국전쟁이 끝난 후로서 인적·물적 자원이 크게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학회의 발기는 한국음악교육사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사명이자 그 당시 음악교육자들의 열정과 헌신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 2.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연혁

우리학회의 연혁은 학회홈페이지(<http://www.kmes.or.kr/>)에 잘 나타나 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sup>5)</sup>

- 1956. 8. 한국음악교육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 회장 현제명교수(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선출
- 1956. 8. 제1회 전국음악교사 강습회 개최
- 1956. 8. 회보 ‘음악교육’ 제1호 발간
- 1956. 9.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회원국 대표기관으로 가입(대표: 현제명)
- 1957. 7. 제2회 전국음악교사 강습회 개최
- 1957. 9. 제1회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개최(이후 해마다 개최)
- 1962. 10. 제2대 회장 정세문편수관(문교부(현 교육부)) 선출
- 1968. 3.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 가입
- 1969. 11. 제1회 음악교육세미나 개최(이후 해마다 개최)
- 1970. 5. 제3대 회장에 정세문편수관 선출
- 1973. 5. 학술 논문집 ‘음악교육연구’ 제1집 발간(이후 해마다 발간)

5) 인터뷰 대상자 원로학자 3명이 1990년대까지 학회임원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에 <표 1>의 주요 내용도 이 때까지만 제시함.

- 1975. 9. 회칙 부분개정 및 임원개선(이사진으로 개편)
  - 1978. 10. 한국음악교육학회로 개칭, 회칙 부분개정
  - 1984. 3. 제4대 회장 류덕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선출
  - 1986. 4. 제5대 회장 장창환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선출
  - 1990. 4. 제6대 회장 신계휴 교수(인천교육대학교(현 경인교육대학교)) 선출
  - 1991. 12. 분기연구발표회 개최
  - 1994. 4. 제7대 회장 이흥수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선출
  - 1995. 10. 창립40주년 기념 26회 학술세미나 및 연수회(교총 대강당)
  - 1997. 8.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음악교육 심포지엄 주최(APSMER)
- (금호인력연수원, 참가국: 한국, 일본, 캐나다, 중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위는 우리학회의 발전 흐름에서 연대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보이는 이로 하여금 간단명료함을 더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소개로는 사건 발발의 시대적 상황과 계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분명 없지 않다.<sup>6)</sup> 이 정도 소개로 우리학회 사건의 배후를 헤아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연대별로 좀 더 자세한 학회 발전사를 소개하면, 우선 우리학회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56년 8월에 창립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이흥수의 회고처럼, 우리학회는 현재명(회장), 김성태(사무국장), 정세문(총무), 한규동(연구부장)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음악교육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기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적 분단이라는 아픔과 전후(戰後) 폐허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회는 매년 「음악교육」회보 발간, 전국음악교사강습회 개최, 청소년음악회 개최,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주관,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가입/참가 등을 전개하였다. 사실, 창립초기 이런 정도의 활동은 과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사실, 오늘날같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분명 엄청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학회는 초창기부터 세계를 품는 국제적 규모의 학회로 출발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우리학회는 1962년 제2대 회장 정세문(1923~1999)이 중심이 되어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이끌었다. 그 활동은 창립 때의 사업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었다. 초창기처럼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교육자 음악회’ 개최와 함께 ‘1회 전국 교사 동요 작곡 강습회 개최(1965)’,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로 가입(1968)’, ‘제1회 음악교육세미나(1969)’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사교육과 학술연구를 하였다. 이런 활동은 전국 초·중·등 교사들의 음악교육의 연구와 교과

6) 이흥수(Lee, 2006)는 “학회 활동 50년, 반성과 과제”에서 학회연혁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서악곡(제재곡) 작곡의 관심을 증대하며 그들의 음악적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활력소가 되었다.

1970년대 우리학회는 1960년대처럼 정세문(제3대)이 중심이 되어 ‘연구발표대회’, ‘동요작곡강습회’, ‘교육자음악회’, ‘음악교육세미나’, ‘음악교육세미나 및 연수회’ 등을 확대하였고, 동시에 ‘교재개발을 위한 교사작곡경연대회(1972)’를 열었다. 또한, ‘음악교육연구 제1집 발간(1973)’의 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학회로서의 진면모를 갖추었다. 이듬해 1978년 우리학회는 학회이름을 「한국음악교육학회」로 바꾸며 연구회에서 학회로 거듭났다.

1980년대는 1960~1970년대의 활동이 더욱 심화·활성화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국 교사 대상의 ‘음악교육연수회(1980)’와 ‘전국우수학교합창·합주경연대회(1983)’가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는 세미나와 교사연수, 논문집 발간 등이 중단되었다. 그런 만큼, 이 시기는 학회가 다소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86년 학회는 장창환을 제5대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음악교육’ 회보와 ‘음악교육연구’ 논문집을 복간하였으며, ‘음악교육세미나’와 ‘음악교육연수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1990년대 우리학회는 신계휴(제6대) 회장과 이흥수(제7대) 회장을 선출하며 학회 발전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논문집 발간은 물론이고, 학술대회와 연수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외국의 코다이,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념과 교수방법 등이 교실의 음악교육에 크게 전파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음악교육 심포지엄(APSMER)을 주최하기도 하였고, 서울에서 열린 국제음악교육협회 세계대회(한국음악교육협회 주최)에도 참가하여 세계 음악교육의 동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정보화 사회로 ICT 음악교육이 권장되며 교실에서는 컴퓨터음악이 도입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사의 사건을 겪은 3명의 원로학자로 하였다.

### 1) 장창환

장창환(1936~2017)은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로서 우리학회 제5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인터뷰 당시(2016년)는 3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에 가장 원로였다.<sup>7)</sup> 그는 현제명과 정세문이 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학회 초창기 모습과 상황, 그리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시기의 역사적 발자취를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 2) 신계휴

신계휴(1941~)는 경인교육대학교(당시는 인천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수로서 우리학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인터뷰에서 1980년대 및 1990년대, 그리고 그가 학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의 상황과 사건들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 3) 이홍수

이홍수(1944~)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음악교육) 교수로서 제7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정세문, 장창환, 신계휴가 학회를 이끌던 시기에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였으며, 그의 제자들과 학생들을 대거 학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특히, 그는 1990년대 사회적·교육적으로 이슈였던 음악과 수업시수의 축소를 반대하는 ‘학교 음악교육과정의 정상화 운동’을 주도하였다.<sup>8)</sup>

## 2. 연구 절차

### 1) 사전 준비

본 연구의 인터뷰는 3명의 원로학자들이 고령인데다가 당시의 생생한 기억 회상을 위해 인터뷰 2주 전에 전화로 통화하여 인터뷰의 목적을 알리며 학회 발전과 관련된 문헌, 사진, 자료 등을 요청하였다. 인터뷰 질문지<sup>9)</sup>는 1주일 전에 전자메일 및 우편으

7) 장창환 교수는 2017년 5월 숙환으로 타계하였다.

8) 이때 참여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수는 무려 3,741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홍수는 교육적으로는 중등학교 음악과 수업시간 적정화에 관한 진정서를 청와대,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점점 오락화 되는 사회 음악을 예술음악 및 한국음악 중심의 질 높은 음악방송을 KBS·MBC·SBS 방송국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9) 인터뷰 구상은 학회 초창기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학회에서 긴 시간동안 활동을 했던 이홍수 교수의 적

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 요약 및 질문을 소개한 것이다.

### (1) 학회 창립 초창기

1956년 8월, 현제명(초대) 회장, 김성태 사무국장, 정세문 총무, 한규동 연구부장 등이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창립하면서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출발하였다. 그 해 제1회 전국음악교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해마다 회보 ‘음악교육’ 발간, ‘청소년음악회’ 개최,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주관(교총 주최), ‘음악교사강습회’ 개최,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가입/참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하였다.

질문 1) 이 시기는 학회의 창립 초기입니다. 창립하신 분들의 근무처와 직위, 창립 동기와 경위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2) 교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학회의 당시 실태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2) 1960년대

1962년 10월, 정세문(2대) 회장, 민원득·장용상 부회장 등이 학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전과 같이 해마다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교육자음악회’를 개최했고, 1965년에는 제1회 ‘전국교사동요작곡강습회’를 열었으며, 1968년 3월,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로 가입하였고, 1969년 제1회 ‘음악교육세미나’를 시작했다.

질문 1) 이 시기의 우리나라 음악교육 및 학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학교 현장의 음악교육 상황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질문 2) 특히 ‘동요작곡강습회’가 눈에 띕니다. 왜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었습니까?

### (3) 1970년대

1970년 5월, 정세문(3대) 회장, 류덕희·오숙경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교사연수를 본격화 하며, ‘연구발표대회’, ‘동요작곡강습회’, ‘교육자음악회’ 등을 꾸준히 열었다. ‘음악교육세미나’는 ‘음악교육세미나 및 연수회’로 확대되었다. 1972년 12월, ‘교재개발을 위한 교사작곡경연대회’를 열었고, 1973년 5월, 논문집 ‘음악교육연구’ 제1집을 발간하였다. 1978년 10월, 회칙을 개정하여 「한국음악교육학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80년 7월,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육연수회’를 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부터 83년까지 여름방학 중 3~4일간씩 열린 연수회(서울, 리라초등학교)에는 해마다

극적인 관여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문지 대부분의 내용은 이흥수(Lee, 2006) “학회 활동 50년, 반성과 과제”에서 발췌하였다.

400여명의 교사가 참가하였다. 그 밖에 ‘전국우수학교합창발표회(1982. 11, 대한교원 강당)’, ‘전국우수학교합창·합주경연대회(1983. 11, 숭의음악당)’를 열기도 했다.

질문 1) 이 시기는 우리학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2) 혹시 특별히 회상되시는 기억이나 사건이 있으신지요?

#### (4) 1980년대

1984년 3월, 류덕희(4대) 회장, 장창환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 시기는 해마다 ‘음악교육연수회’는 개최했지만, 세미나와 음악회를 열지 못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지 못했다. 1986년 4월, 장창환(5대) 회장, 정문섭·이석기·신계휴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회보 ‘음악교육’과 논문집 ‘음악교육연구’를 복간(제5집)하고 ‘음악교육세미나’와 ‘음악교육연수회’를 개최하였다. 1986년 6월, ‘새 음악과 교육과정의 방향(신계휴)’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학회 의견을 제안하였고, 1989년 8월, ‘칼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념과 방법’ 세미나를 열었다.

질문 1) 이 시기에 교수님께서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보아 학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기억하시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2) 1984년에는 세미나와 음악회 및 논문집이 발간되지 못했던 위축된 시기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질문 3) 1986년에는 교수님께서 학회장으로 활동하신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교수님의 활약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역점 사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4) 교수님께서 회장이 되고 난 후, 다시 회보 및 논문집의 복간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5) 우리나라의 80년대는 흔히 격동기라고 불립니다. 음악교육사적으로 볼 때 당시의 음악교육의 상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음악교육학자 및 교사들의 교육신념과 활동상과 관련하여 이모저모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6) 이 시기에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칼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념과 방법’ 도입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론 및 교수법의 정도는 어떠했고, 외국의 교육이론 및 교수법의 관심과 도입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효과 및 결과가 있었습니까?

질문 7) 이제 교수님께서서는 우리학회의 원로 중의 원로이시며, 산 증인이십니다. 우리학회의 발전사를 보시면서 학회에 대한 1)아쉬운 점, 2)역할 및 기대, 그리고 3)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우리학회 및 후배 학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2) 인터뷰 실제<sup>10)</sup>

### (1) 인터뷰 시간과 장소

인터뷰 시간은 2016년 7월 22일 점심때로 햇볕이 매우 강렬하게 내리쬐는 몹시 더운 한여름날씨였고, 장소는 서울 광화문 근처의 ‘진진바라’ 한식음식점이었다. 인터뷰는 점심 식사를 1시간 정도 한 후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 공간은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10평 정도의 시원하고 조용한 단독 방이었다.

### (2) 만남 당시의 상황

본 연구자와 원로학자들은 인터뷰 당일 각자 인터뷰 장소(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신계휴 교수와 이흥수 교수와의 만남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지만, 최고 연장자인 장창환 교수와의 만남은 쉽지가 않았다. 특히, 장창환 교수와의 만남은 본 연구자와 안면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전화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만나기까지는 꽤나 진통을 겪었다. 이런 까닭으로 모두가 만남의 장소 근처에 도착했음도 불구하고, 만남까지는 거의 30분이 소요되었다. 한여름 땀별의 무더운 날씨로 모두는 몸이 땀으로 흠뻑 뻐 상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식당에 들어갔다.

### (3) 원로학자들의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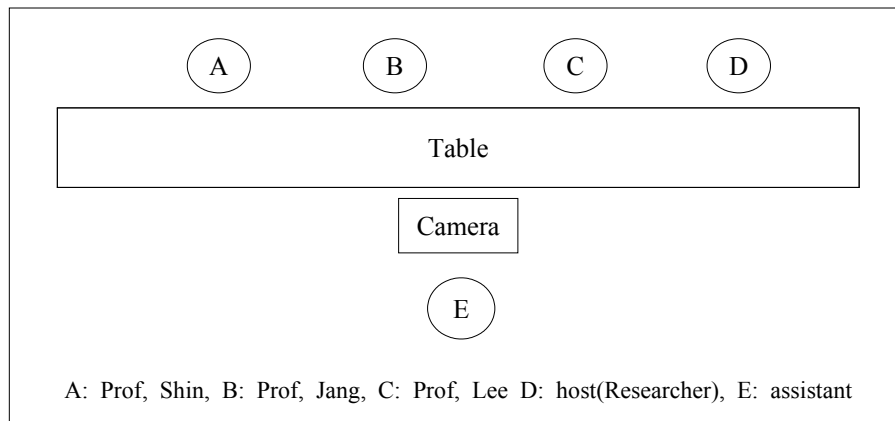
장창환 교수는 아주 왜소한 몸집에 중절모자를 쓴 깔끔한 차림이었다. 비록 허리는 굽지 않았지만 80세 넘은 노인의 모습이 역력하였다. 또한 치아의 손실로 발음이 다소 부정확했을 뿐 아니라 청력도 쇠하여 인터뷰 중에도 보청기를 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와 걸음걸이는 꽤나 좋아보였다(강동 자택에서 광화문까지 전철을 타고 옴). 신계휴 교수는 키가 조금 작은 체구와 통통한 체형에 화가스타일의 모자를 쓴 깔끔한 차림의 정정한 모습이었다. 발음은 정확하였고, 신체활동에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이흥수 교수는 남방 차림의 아주 건강한 모습과

10) 여기서부터 인터뷰 실제이므로 연구 대상자를 언급할 때는 ‘교수’, 이미 작고한 사람은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진술함.

체력을 겸비한 노익장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인터뷰를 위한 원로학자들의 건강은 대체로 양호하였다.<sup>11)</sup>

#### (4) 인터뷰 세팅

인터뷰 세팅은 식후 식탁테이블(120×200mm 정도) 2개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놓고, 사회자를 맡은 본 연구자, 그 오른쪽으로 이흥수 교수, 장창환 교수, 신계휴 교수가 차례대로 앉았다. 인터뷰 촬영은 보조자 1명이 삼성갤럭시노트 5(2015년 출시 제품) 휴대폰으로 하였다.<sup>12)</sup>



[Figure 1] Interview setup

## IV. 연구 결과

### 1. 원로학자들의 회고

#### 1) 학회 창립 초창기

우리학회는 학회연회에서처럼 현제명 선생을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11) 각 사람의 차림새와 인상의 정도는 부록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기 바람.

12) 편집된 인터뷰 동영상은 이미 학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장창환 교수:** 학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일찌감치 현제명씨가 회장이 되어가지고서 학회에 협의대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정세문 선생이 총무, 김성태 선생님이 사무국장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장창환 교수는 초대회장 현제명 선생의 회고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당시 활발한 음악교육 활동을 하며 음악교육에 이바지한 그의 선배이자 은사였던 정세문 선생을 먼저 회고하였다. 당시 정세문 선생은 춘천사범학교(현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서울청계초등학교에서 활발한 음악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장창환 교수:** 정세문 선생님이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춘천 사범학교를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일찌감치 그 음악교육을 발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 청계초등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전개 하는데 지금까지 음악시간이나 창가시간이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전부인데 이분이 리듬합주를 하는거예요, 리듬합주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거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리듬 합주를 하니까 리듬 훈련도 시킨거고. 그리고 합주를 하는데 제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전국에서 모여들어 가지고서는 참가를 했는데, 외국인 미국인 고문단들이 왔다가, 그 양반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모두 놀란거야! 한국이라는 데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세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지.

정세문 선생의 이러한 활약은 현제명 선생에게도 알려졌다. 그래서 현제명 선생은 그를 자신의 음악학교<sup>13)</sup> 교수로 초빙하였다. 사실, 정세문 선생은 1948년 경찰악대장으로 있으면서 행진곡풍의 〈어린이 행진곡〉 동요를 발표하며 이미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육부(당시는 문교부)에 근무하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독창곡, 동요백서 등을 편찬할 정도로 음악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애착을 갖고 있었다.

한편, 장창환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학회의 초대회장 현제명 선생은<sup>14)</sup> 자신의 대학을 만들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올

13) 장창환 교수와 신계휴 교수는 “현제명 선생이 손수 만든 음악학교는 후에 서울대학교에 수용되고, 거기서 음악대학 학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서울대학교 초대학장이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14) 현제명 선생은 “해방 후 1945년 9월 고려교향악단을 조직해 1948년까지 이사장으로 운영하였으며,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발기인 겸 중앙위원회 문교부 위원에 선임되었다. 1946년 2월 경성음악연구원이 경성음악학교로 인가받으며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8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로 편입되면서 초대 음악부장을 맡았으며 1952년 학장이 되었다. 1949년 1월 문교부 예술위원회 음악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53년 한국음악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1954년 예술원 종신회원으로 선임되었다. 1954년과 1955년에 미국 NBC교향악단의 내한공연 등을 주선하였고, 1955년 마닐라 아시아음악회의 참석과 1958년 유네스코국제음악회의 참가 등을 계기로 한국음악의 국제적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https://terms.naver.com/entry>)”.

정도로 음악교육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 전후로 자신이 속한 음악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음악대학 학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내적 갈등은 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현제명 선생을 병환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장창환 교수는 회고하였다.

**#장창환 교수:** 현제명씨는 아류의 음악대학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피아노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는 미안하죠. 그걸 받아가지고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음악대학을, 서울대학교 13회라 그러면 음악대학 11회예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현제명씨 하면 누구나 다 놀라울 정도로 칭찬했죠. 그 노래가 '해는 저서 어두운데(고향생각)'. 그 노래를 누구나 다 애창했어요. 그래서 현제명 그러면은 정치에서 마치 이승만 씨를 말하듯이 음악에서는 현제명,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 때 아니, 4·19때 다른 교수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도 학장을 하겠다고 불붙이 일어난 거예요. 음악대학은 제자 관계가 있으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스승이 나올라 그러면은 뒤에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참 서운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쌓였던 것이 화병이 되어가지고 60세인데 키도 크고 튼튼하던 사람이 화병이 나니까 며칠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때 학생회장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하고 현제명 씨가 송실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선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건 다 아쉽죠. 현제명 씨는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못다 이루시고. 그만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신계휴 교수:**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남산에다가 현제명 선생이 음악대학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정부 수립되면서 국립대학 설치할 때 흡수를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오면서 그냥 학장을 하신거죠. 그런 역사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한 것 같아도 몇 년도 안 한 거예요.

**#장창환 교수:** 그리고 4·19때 학장 하겠다고 하던 분들은 이장춘, 김순열(피아니스트) 또 김세열씨(?) 그런 분들이 은근히 학장을 해야 되겠다, 학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딴느냐. 이래가지고서 교수하고(?) 학생들 하고 동원시켜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진압부대 대장이지, 그래가지고서 이선재 선생하고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진압을 시켰죠.

여기서 현제명 선생의 학회 업적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회의 창립초기인 1957년 우리학회의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가입이다. 그것은 아마 그의 미국유학 시절 미국의 교사들이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모임을 갖는 것을 보며 얻은 영감에서 비롯된 듯하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시대에서조차 그러한 국제적인 음악협회 가입 및 활동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당시 우리의 어려운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볼 때,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우리학회를 학회답게 보았겠는가? 그런 만큼, 우리학회의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가입은 일찍이 현제명 선생이 국제 음악교육의 동향에 대한 견문과 함께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현제명 선생의 공헌으로 우리학회는 창립초기부터 국제적 위상을 갖추 수 있었다.

**#장창환 교수:** 이 학회는 좀 이야기가 있어요. 현제명씨가 ISME 회원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미국에서 연결되니까, 오셔서 ISME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가지고 총무를 정세문 선생을 시켰어요. 그러가지고 정세문 선생은 무엇보다도 활동적이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수완이 좋았어요.

## 2) 1960년대

1960년대는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사회 전반으로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학회에도 영향을 끼쳐 회원들 간의 일면의 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는 성장을 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장창환 교수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장창환 교수:** 4·19때 그걸 내가 진압을 하면서 나 댜에는, 나는 혼자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김성태 선생님을 학장으로 앉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압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력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흩어져가지고 속대(?)로 가고 그러가지고 좀 분열이 됐죠. 나운영씨 하고는 벌써부터 분열이 됐고. 나운영씨 하고는 음악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임용대(?) 선생님은 교무처장하던 거니까 서울 대학 본부에서 학장을 시켰어요. 임명했어요. ...[중략]... 그러나 꾸준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없게끔 스스로 4·19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다 물러나버리게 됐고. 그래서 그냥 학장님으로 계속해서 김성태 선생님이 올라 있다가 그래도 오래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학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저게 뭐냐고' 이래가지고서 좀 안정이 되는 데 ...[중략]... 그리고 정세문 선생이 회장이 됐는데 ISME에 가려면 영어를 해야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민원득 교수라고 해서 이대 교수를 부회장으로 모셨죠. 부회장으로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젊은 여자 교수를 영입해가지고 하는데, 오숙경 교수를 데려다가 부회장을 시켰어요.

정세문 선생이 제2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1960년대는 군사정권의 어수선했던 사회 분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학회는 ‘전국교사 동요작곡 강습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음악능력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강습회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동요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합창대회 또한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우리학회가 이 시기의 우리나라 음악교육을 얼마나 주도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때 상황을 이흥수 교수와 장창환 교수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이흥수 교수:** 내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그 동요 작곡 강습회가 참 활발했어요.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정세문 선생님이 뒷받침을 해주시고 손대업 선생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당시에 나운영 선생님도 오셔서지고 강습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계석 선생님, 김봉선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교사들에게 동요 강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운영 선생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는 동요가 한 박자계의 동요가 많았는데 당신이 구두 발자국이라는 노래를 쓰면서부터 리듬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화상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요가 그때부터 작곡가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동요 작곡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학회에서 동요 작곡에 대한 강습을 많이 하면서 교사들이 동요를 작곡하기 시작해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화성학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학회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연수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그 리라초등학교나, 송의초등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연수회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이 그 음악교육에 대한 강연을 듣고, 화성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장창환 교수:** 거기에 이어서 강습회라든가 대회를 하는데,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대한교연에서 각 교과별로 연구대회를 했어요. 그 연구대회를 하는 통에 음악교육에서도 연구부를 만들어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평가받으면 푸른 기장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열기들이 달아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음악교육도 학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강습회는 좀 줄어들었지만 연구대회를 통해서 일보 전진했죠.

### 3) 1970년대

1970년대는 장창환 교수와 이흥수 교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였다. 장창환 교수는 당시 우리학회의 활동 임원진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장창환 교수:**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4년. 나도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세문 선생이 회장, 오숙경씨가 부회장, 류덕희 선생이 부회장, 나는 총무이사, 윤양석 연구부장, 그걸로 최종진, 김용진, 한정순, 이효순, 김인화, 조삼진, 김문자, 백원정, 이홍수, 김정령, 김준수, 윤군자, 감사 유원과 유장열. 여기서 본격적으로 1975년 9월부터 신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레가지고 신진, 새로운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이홍수 교수가 많은 공로를 세웠죠.

이때부터 본 연구 대상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장창환 교수와 이홍수 교수는 학회임원으로 같이 활동하며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사실, 장창환 교수는 정세문 선생님과 사제지간(師弟之間)이었다. 이홍수 교수 역시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 학회활동에 열심을 다하였다. 이 두 사람은 1992년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까지 지속되며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이 시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73년 학술 논문집 ‘음악교육연구’ 제1집의 발간이었다. 무릇 어느 학회를 무론하고, 학술 논문집의 발간은 학회발전사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학회는 처음부터 학회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음악교육연구’라는 학술지(논문집)를 발간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작의 물줄기는 학회연혁처럼 1973년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장창환 교수의 인터뷰에서 분명해진다.

**#장창환 교수:** 연구회가 ISME 이후로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ISME는 젊은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가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에 두 부류의 단체가 생겼어요. 음악교육 협의회, 그거는 ISME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음악교육학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1집 논문집이 나올 때부터가 학회라고 된 거예요. ...[중략]... 그때 당시만 해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것이 뭐 무슨 그런 학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별로 관심세력이 없었는데 대학이, 대학원도 생기면서 논문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 해가지고 학회라고 해야 논문도 인정을 받았어요. 학회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무집에 불과하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학회라고 하면 비로소 그것은 논문으로 인정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나도 다른 교과는 이미 학회를 다 만들었는데 음악교과는 학회라고 안했어요. 연구회라고만 했지. 그러고는 학회라고 고지해야겠다고 정세문 선생에게 졸랐죠. 그레가지고서 학회라고 하면서 제1집을 내고 2집을 내고 3집을 내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얕아요. 논문 쓸 사람이 없으니까.

1950~1960년대 우리학회는 학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음악교육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인 ‘연구회’ 정도였다. 위 인터뷰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는 음악과 같은 예술교과의 학문 연구에 대한 경시가 만연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학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학문적·교육적 성과를 남기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1973년에 학술지(논문집)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학회는 '연구회'에서 '학회'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회고되었다.

**#이흥수 교수:** 그때(학회라는 이름으로 논문집을 발간할 때) 교연<sup>15)</sup>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장창환 교수:** 교연에서는 묵인해 준거죠. 학회가, 교연 산하에서 학회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 교연 음악교육분과지. 음악교육학회라는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논문 써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학회라고 이름을 넣기 시작했죠. 근데 음악교육연구라는 타이틀을 쓰기 때문에 음악교육 연구회가 계속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논문집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학회로 만들었어요.

**#사회자:** 그러면 교수님, 그게 73년도에 음악교육연구 1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혁 정리되어있는 데는 78년에 한국음악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973년도에 논문이 발간되면서 연구회가 학회로 바뀐 겁니까?

**#장창환 교수:** 예.

위 인터뷰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학회가 학회로의 개명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연구 과제 및 실적의 필요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한국음악교육학회'라는 명칭의 사용이 1978년이 아니라 1973년 학술지 발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16)</sup>

#### 4) 1980~1990년대

이 시기는 본 인터뷰 대상자들이 임원으로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의 학회 활약상은 원로학자들의 기억에도 희미한 위축된 시기로 가늠된다.

15) '교연'이란 대한교육연합회를 가리킴.

16) 학회연혁에는 학회의 개명이 1973년이 아니라 1978년으로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당시 장창환 교수는 학회의 개칭이 자신의 승진과 관련한 일이었기에 그 시점은 1973년이 분명하다고 기억하였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자:** 그럼 1980년대로 조금 넘어가보면, 교수님. 지금 1980년대를 보면 장창환 교수님께서 부회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986년에는 회장님으로 역임하시는 이런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면 음악 연수회 같은 것들은 개최되었지만 세미나와 음악회를 열지 못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지 못했던 다소 위축된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시대적 상황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위축될 만한 것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위축된 시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계휴 교수:** 위축인지는 모르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이흥수 교수:** 예. 저는 (미국) 갔고, 그때 류덕희 선생님이 회장이실 때, 학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신계휴 교수:** 활발한 인상이 없네. 활발한 인상이 없어.

그러던 우리학회는 1986년 장창환 교수가 회장을 맡으면서 다시금 현장 교사연수, 학술세미나, 그리고 논문집 간행 등의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학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사회자:** 네. 그러다가 1986년에 장창환 교수님께서 다시 이제 회장하시고 이제 신계휴 교수님께서 부회장님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세미나, 연수회 및 논문집 등)이 다시 복간이 되어지고 새로운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신계휴 교수:**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기억이 나요, 부회장을 맡으면서. 장창환 교수님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하려고하는 내용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흥수 교수:** 인천교대 강당에서도 하고.

**#신계휴 교수:** 거기서도 하고. 저기 어디 수원.

**#이흥수 교수:** 수원 매산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신계휴 교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 학교마다의 실정도 파악하면서 음악 교육의 현실도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신계휴 교수:** ...학회를 장 교수님이 맡으면서부터 좀 내적으로 활발했어. 왜냐면은 부회장 내지 이사들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 임원들끼리라도 우선 연수를 했어요. 어떤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발표를 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내적 활동이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회보도 만들지만 그거보다도 그때 연구 방법도 ...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

이 나눠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연구방법을 한번 내가 맡아서 강의한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현장에 관한 문제점 또는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내적인 활동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장창환 교수님 회장할 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박사들이 한꺼번에, 이흥수 교수가 들어오시면서 지금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바로 들어오면서 확 그 기반이 달라졌죠.

**#신계휴 교수:** 그때까지도 학회라는 이름보다는 연구회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수준이었어요. 수준만이 아니라 그 활동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같이 무슨 강습회, 연수회. 그러던 것이 그래도 좀 학회라는 이름으로 나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학회다워질 것인가 해서 연구의 기초를, 연수를 물론 계속 해야 하지만 연구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연구 방법 세미나 같은 것도 해보고. 더러는 그 교육학 하는 분들 중에서 연구와 관련된 특강도 좀 부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씩 하던 것하다가 그런 것을 좀 더 가미하기 시작한 때가 8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우리학회의 사업과 활동은 최고조에 이르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의 최전성기를 이룬다. 특히, 이흥수 교수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신진 학자들은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함께 외국의 음악교육 및 교수법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sup>17)</sup> 그리고 1990년대에는 국내에도 교원양성대학교 중심으로 음악교육 석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연구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때 학회 구성원은 무려 1000여명에 이르렀다.

**#사회자:** ... 80년대 후반에 보니까 여기 보면 칼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념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어떤 이론과 실천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80년대 후반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계휴 교수:** 이론상으로는 그 교과서도 보면 알지만, 아주 그 전부터 도입을 했죠. 정세문 선생님.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했지 외국 교류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 것이 그때부터는 교류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직접 갔다가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보는, 문헌적으로는 벌써 우리 초기부터 했어요. 거의 1집부터, 그 교과서 초창기부터 정세문 선생님이 교과서 만들 때부터 그걸 하셨죠.

**#장창환 교수:** 우리가 신 교수 때까지 올 때는 국내적으로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흥수 교수가 오면서부터 국제화되었죠. 그런 시대가 오게끔 된 것이지. 실제로도 그렇

17) 이때의 많은 신진학자들은 교원양성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자리하였다.

게 했으니까. 외국 사람들에다가 같이 강습회도 하고.

**#신계휴 교수:** ... 그래도 음악교육을 많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대학인데, 그 전까지는 2년제였기 때문에 교육대학도 그렇게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4년제가 되면서, 80년대 초에 그러면서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바탕에 조금씩 생기는 거죠 더. 그런 사회적 배경과 또 외국에서 학위를 해오는 인재들, 이런 것들이 함께 되면서 80년 중반부터는 좀 더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봐 주면 되겠어요.

**#이흥수 교수:**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심부름하면서 학회 일을 시작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갖추어 놓은 그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숙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회장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젊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학자들이 귀국해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고 그리고 우리학회의 연구회라든가 연수회의 새로운 얼굴의 강사가 많아졌죠. 그게 특징의 하나고, 두 번째는 교원대와 교육대, 사범대에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음악교육학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교원들의 학구열이 높아지고, 또 학회참여교사가 대폭 증가하면서 1998년경에는 한 1000명이 되었어요. 회원이요.

또한, 이 시기는 우리학회가 국내외적인 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하였던 시기로 기록된다.

**#이흥수 교수:** 한편으로는 1992년에 우리 서울에서 세계음악교육자 대회, ISME가 열리면서 우리학회 임원들이 그 ISME 대회에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음악교육협회라는 그 협회가, 조상연 선생님이 하던 그 협회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활동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학회 간부들이 대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진행도 보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부터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하던 세계 대회에 참여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일본의 이치로 무라오 교수하고 호주의 게리 백 펄슨 교수, 캐나다의 로버트 워커 교수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아시아-태평양 지부 음악교육연구 심포지엄을 열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1997년에 제 1차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호주, 일본, 홍콩 등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그러면서 외국 학자들과 우리나라 교수들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1990년대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좀 탄탄해지고 외연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죠.

이처럼, 1990년대 우리학회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을 주도하며 사회적으로 음악문화를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음악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은 약

화되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경제적 불황을 겪으면서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사회 전반의 음악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학교의 음악교과 수업의 축소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음악의 오락화가 대두되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총체적 위기였다. 우리학회는 이런 위기에 맞서 2000년대 초까지 대규모적인 집회와 서명 운동을 벌이며 음악교육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핵심 역할을 하였다.

**#이흥수 교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발해지는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교육과정문제. 96년에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 시간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그 감소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과 전국의 교사들, 학부모들이 서명을 해서 37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적정화에 관한 진정서를 청와대,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발원에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한편 또 우리학회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KBS, MBC, SBS에다가 방송의 질을 좀 높여 달라, 예술음악, 한국 음악 중심으로 방송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중학교 시수가 감소되고 고등학교 이수 단위가 축소되고 그런 일도 있어서 음악교육자 단체 협의회를 조직해서 2003년에는 음악교육정상화결의대회도 열구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시 이제 2000년대까지 계속되기 시작했죠.

## 2. 원로학자들의 바람

인터뷰 원로학자들은 우리학회의 창립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학회의 근간을 세우고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였다. 그 결과 우리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속에 우뚝 선 학회가 되었다. 이제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도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음악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간의 세월 동안 이들이 지금의 우리학회나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갖는 느낌이나 생각은 남다를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그들에게 지금의 우리학회 및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신계휴 교수:** 제가 이제 서두만 하면 또 상세한 것은 이 교수님께서 잘 하실 테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회비만 가지고 뭘 할래도 많이 할 수는 없고, 어떤 프린트 하나도 어려웠어요. 복사기도 없을 때니까. 그걸 리라에서 장소를 빌리고 거기서 복사기, 종이까지 다 얻어 쓰던 그런 지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선학교의 그 부회장님들이 교장으로 계시던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이 무더운 때, 아주 열악한 때 그 선생님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참 그런 밑바탕이 오늘을 만들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학회는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현장교육은 그때만 못한 것 같아요. 전부가 그 리모컨으로 끝내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몸으로 직접, 학생과 선생이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커가고 있는데 교육적으로는 현장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되고 있죠.

**#장창환 교수:** 음악 박사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음악박사 그러면은 거의 없었죠. 계정식 씨 밖에 없었어요. 계정식이라고 하는 옛날 음악가가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집하는데 부터 ‘음악박사여야만 된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음악박사가 또 실제로 많고. 그제 음악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박사들은 박사님들이니까 개인적인 주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좀 더 음악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박사들이 좀 더 희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논문 하나 써가지고선 ‘박사 됐다, 내 grade는 박사다.’ 이 기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얻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젠 좀 차원이 달라졌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이홍수 교수:** 음악교육학회가 지금 상당히 학문적으로나 학교 현장의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궤도에 올라서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교대 사대 교수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음악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좀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악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또는 우리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가꾸어 주는, 정신을 높이고 가슴을 채워주는 그 일, 높은 이상을 갖게 하고 바른 품성을 갖게 하는 그 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교수들은 핵심역량 운운하면서 지식과 정보, 능력 갖추어 주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학문학문 그러면서 학회를 양분하게 만드는 그런 동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교수들에게 젊은 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음악교육의 본유의 소명이 있고 시대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간에 음악교육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본유의 소명이 있고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본유의 소명과 시대적 요구를 잘 조정해가면서 ‘학문과 적용, 그건 동전의 양면이다. 지식능력과 인성, 동전의 양면이다. 교수와 교사 동일하게 음악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교수 따로 학문하고 교사 따로 적용 하는 게 아니다. 교수와 교사는 늘 함께 가야한다. 지식능력과 인성은 함께 가야한다. 학문과 적용은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회를 이끌어 가야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교수 분들에게 또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이 학문과 적용을 따로 생각하지 마라,

학문은 적용을 위한 것이고 적용은 반드시 학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학교를 눈여겨보고 교사들은 학문을 눈여겨보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학회가 발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야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원로학자들의 당부는 하나같이 걱정과 우려가 담긴 말들이었다. 곧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학회가 음악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서 학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도해 나가길 부탁하였다. 이 말은 곧 지금의 우리학회가 학교 음악교육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더욱 발전하는 학회의 모습으로 그 위상을 당당히 세워달라는 명언(明言)으로의 귀결이다.

## V. 나가는 말

인터뷰에서 원로학자들은 걸어온 지난 날 학회의 상황을 비교적 생생하게 들추며 그 때의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증언해 주었다. 여기서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학회의 선배로서 지난날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숙명적 과제로 여기며 학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 그들의 헌신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시대적 아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학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이다.

국가나 개인에 있어서 역사는 그 뿌리와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우리학회의 연혁도 마찬가지다. 원로학자들의 증언으로 지난날 우리학회의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인터뷰 정도로 학회 발전사를 모두 아우르고 이해하기는 분명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학자들의 증언은 우리학회의 귀중한 사료(史料)로 남을 것이다. 더욱이 인터뷰 속에 녹아있는 음악교육에 대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의지는 오늘의 음악교육을 되짚어보게 하고, 내일의 우리의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지시한다.

## References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Yang, J. M., Seung, Y. H., Yang, J. M., Lee, Y. K., R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0).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Lee, H. S. (2006). Society activities 50 years, self-reflection and assign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1-7.
- Chang, S. H. (1996). *The history of Korean music*. Seoul: Sekwangmusic
- Ju, D. C., Kwon, S., Kim, G. S., Kim, M. S., Kim, S. M., Kim, S. Y., Kim, Y. M., Kim, Y. H., Kim, J. H., Min, K. H., Park, Y. J., Park, E. S., Park, J. C., Park, J. H., Bae, S. Y., Yang, J. M., Ryu, E. S., Yoon, M. J., Yoon, J. Y., Lee, K. W., Rhee, E., Rim, M. K., Lim, E. J., Jang, G. J., Cho, D. H., Cho, S. G., Choi, E. A., Choi, J. H., Hyun, K. S., & Hong, I. H. (2018). *Research Trends in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Mark, M. L. (1992).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rans Lee H. S., & Jang K. B. Seoul: Sekwangmusic.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7775&cid=46663&categoryId=46663>. Retrieved December 6, 2019
- Kwon, D. W. (2004). 50 years of school music education: Reflection and prospect. reflection and prospects for 50 years of school education in 2004. *Center for In-service Educat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80-611.
- Lee, H. S. (2004). Reflection and prospect for 50 years of music curriculum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Focusing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music curriculum-. *Center for In-service Educat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624-668.
- \_\_\_\_\_ (2015). Justification and responsibility for music subjects. *2015 Korea Music Education Association Summer Conference*, 3-15.

Received: 26 February 2020, Reviewed (Revised): 25 March (31 March) 2020

Accepted: 17 April 2020, Published: 31 May 2020

**Gi-Su, Kim:** E-mail: gisu1027@cue.ac.kr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 Jinyangho-ro 369beon-gil,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 <부 록>

### 1. 인터뷰 녹취록

**#사회자(본 연구자):** 금년 우리 한국 음악 교육 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연혁 차원에서 원로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증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회 5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장창환 교수님, 6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신계휴 교수님, 그리고 7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흥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우리나라 음악 교육과 한국음악교육학회에 역사의 발자취를 위한 이 자리에 기꺼이 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 음악 교육 학회의 60주년을 되돌아보는 역사의 발자취인 만큼,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활동하셨던 시기에 기억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학회의 초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학회가 1956년 8월 현재명 선생님이 초대 회장이 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회가 1956년 8월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보면 이때 제1의 정부음악교사 강습회 등 여러 가지 음악활동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시기에는 보니까 음악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생소한 시기였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들 이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장창환 교수님, 이 시기에 기억나실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장창환 교수:** 1950년대, 현재명 선생님이 창립할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하죠. 정세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되고, 우리 음악교육의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선 에피소드를 하나 말로 시작하죠. 정세문 선생님이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춘천 사범학교를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일찌감치 그 음악교육을 발전적으로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 청계초등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전개 하는데 지금까지 음악시간이나 창가 시간이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전부인데 이분이 리듬합주를 하는 거예요. 리듬합주를. 리듬합주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거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리듬 합주를 하니까 리듬 훈련도 시킨거고. 그리고 합주를 하는데 제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전국에서 모여들어 가지고서는 참가를 했는데, 외국인 미국인 고문단들이 왔다가, 그 양반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모두 놀란거야! 한국이라는 데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세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기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지. 그래가지고서 대학에서 현제명씨가 잘 봐가지고서 초대했어. 초대를 해가지고서 교수직을 주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정세문 선생님은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 밖으로 경찰로 갔을 때, 경찰 악대 대장도 했어. 그래서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어린이 행진곡)'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행진곡, 그것도 정세문 선생님이 경찰 악대에 있을 때 활동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배들한테 말해줄 것이 어떤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사회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훌륭하게 하는 선생님인데 나는 제자로서 근처도 못가요. 그렇게 왜냐하면 정세문 선생님이 교육부에서 근로하면서 언제 했는지 독창곡 같은 곡집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동요 백곡집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한 것을 보면 놀라워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다 부럽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세문 선생님을 존경했었지만은 더욱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제명씨는 아류의 음악대학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피아노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는 미안하죠. 그걸 받아가지고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음악대학을, 서울대학교 13회라 그러면 음악대학 11회예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현제명씨 하면 누구나 다 놀라울 정도로 칭찬했죠. 그 노래가 '해는 저서 어두운데 (고향생각)'. 그 노래를 누구나 다 애창했어. 그래서 현제명 그러면은 정치에서 마치 이승만씨를 말하듯이 음악에서는 현제명,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때 아니, 4·19때 다른 교수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도 학장을 하겠다고 뿔뿔이 일어난 거예요. 음악대학은 제자 관계가 있으니,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스승이 나올라 그러면은 뒤에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참 서운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쌓였던 것이 화병이 되어가지고 60세인데 키도 크고 튼튼하던 사람이 화병이 나니까 며칠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때 학생회장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하고 현제명씨가 송실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선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건 다 아쉽죠. 현제명씨는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못다 이루시고. 그만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홍수 교수:** 그 1956년에 현제명 선생님은 음대 학장이셨어요?

**#장창환 교수:** 학장이지.

**#이홍수 교수:** 그다음에 한규동 선생님은?

**#장창환 교수:** 한규동 선생은 같이 동료로서 그냥 있었는데, 일찌감치 나갔어요. 갈라졌어요.

**#이홍수 교수:** 그다음에 김성대 선생님은?

**#장창환 교수:** 김성대 선생님은 약간 후배 격인 교수였는데, 교무처장이었지.

**#이홍수 교수:** 정세문 선생님은 양성소. 음악교사 양성소 담당 교수였고.

**#신계수 교수:** 그게 공식적으로 중등교원 양성소가 됐어요. 그 이름이

**#사회자:** 그 네 분이 학회를 시작한거죠?

**#장창환 교수:** 네. 그렇게 음악교육학당을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죠.

**#이홍수 교수:** 현제명 선생님이 미국 가셨다가 미국의 음악교사들 모임을 보고 돌아오셔서 '우리도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다고 그러시네요. 기억나세요?

**#장창환 교수:** 이 학회는 좀 이야기가 있어요. 현제명씨가 ISME 회원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미국에서 연결되니까, 오셔서 ISME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무를 정세문 선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정세문 선생은 무엇보다도 활동적이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수완이 좋았어요.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인쇄물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새같이 컴퓨터로 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출판사에서 한번 말을 할라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안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문교부 편수관으로 있었어. 정세문 선생이. 편수관으로 있어가지고서 출판사 사장들하고서 어울려가지고 사장들한테 '자네, 이거 하나 인쇄 좀 해주게.' 그러면은 인쇄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팜플렛 같은 것들을 많이 덕을 봤죠.

**#이홍수 교수:** 그리고 70년대에, 그 외국에 자주 못나갈 때 조상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ISME 관계로 자주 나가자고, 합하자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것 기억나세요?

**#장창환 교수:** 조상연 선생님은 바리톤이니까 가서 바리톤하면 잘하실 것 같다 생각하신거지. 본인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말해선 안되지만, 바리톤이 황병덕 교수보다는 좀 못했어요. 소리가 좀 약했어요. 그래도 자만

심은 ‘내가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활동을 하는데, 정치인들하고서 활동을 해가지고 적십자 훈장을 받아왔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음악활동도 하면서 일 년에 한 번 씩은 동창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서운한 일인데, 국회의원도 했고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4·19때 학장하겠다고 하던 분들은 이장춘, 김순열(피아니스트) 또 김세열씨 그런 분들이 은근히 학장을 해야 되겠다, 학장을 돌아가면서 하는거지 혼자서 그렇게 하는게 어 났느냐, 이래가지고서 수--고 학생들하고 동원시켜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진압부대 대장이지, 그래가지고서 이선재 선생하고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진압을 시켰죠.

**#신계휴 교수:**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남산에다가 현제명 선생이 음악대학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정부 수립되면서 국립대학 설치할 때 흡수를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오면서 그냥 학장을 하신거죠. 그런 역사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한 것 같아도 몇 년도 안 한 거예요.

**#사회자:** 네. 몇 년 안 되죠.

**#이흥수 교수:** 그러니까 초창기에 학회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은 기억나세요?

**#장창환 교수:** 학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일찌감치 현제명씨가 회장이 되어가지고서 학회에 협의대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정세문 선생이 총무, 김성태 선생님이 사무국장 그렇게 하면서 김성태 선생님은 사실은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4·19때 그걸 내가 진압을 하면서 나 땀에는, 나는 혼자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김성태 선생님을 학장으로 앉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압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력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흩어져가지고 숙대?로 가고 그래가지고 좀 분열이 됐죠. 나운영씨 하고는 벌써부터 분열이 됐고. 나운영씨 하고는 음악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임용대 선생님은 교무처장 하던 거니까 서울 대학 본부에서 학장을 시켰어요. 임명했어요. 그때그때 학장은 -- 할 때죠. 그러나 꾸준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없게끔 스스로 4·19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다 물러나버리게 됐고. 그래서 그냥 학장님으로 계속해서 김성태 선생님이 올라 있다가 그래도 오래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학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저게 뭐냐고’ 이래가지고서 좀 안정이 되는 때 김성태 선생님이 하나 서운한 거는 나보고 ‘너는 졸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짓에 끼여가지고 요령을 부러가지고선 너는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나는 서운했어

요. 그리고 정세문 선생이 회장이 됐는데 ISME에 가려면 영어를 해야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민원석 교수라고 해서 이대 교수를 부회장으로 모셨죠. 부회장으로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젊은 여자 교수를 영입해가지고 하는데, 오숙경 교수를 데려다가 부회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4년. 나도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세문 선생이 회장, 오숙경씨가 부회장, 류덕희 선생이 부회장, 나는 총무이사, 윤양석 연구부장, 그걸로 최종진, 김용진, 한정순, 이효순, 김인화, 조삼진, 김문자, 백원정, 이홍수, 김정령, 김준수, 윤군자, 감사 유원과 유장열. 여기서 본격적으로 1975년 9월부터 신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진, 새로운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이홍수 교수가 많은 공로를 세웠죠.

**#이홍수 교수:** 하하 무슨, 공로는요. 심부름했죠 저는.

**#장창환 교수:** 내가 총무할 때,

**#이홍수 교수:** 새끼총무. 하하

**#장창환 교수:** 곧바로 총무를 이어받고, 내가 회장하고 그다음에 회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홍수 교수가. 정세문 선생은 책을 발간하는 데는 공헌을 했지만 실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은 이홍수 교수예요.

우리 같이 어울리다보니까 신계휴 교수도 또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지금까지 와서 많이 변했는데, 아주 우리가 2세대라고 하면 현제명씨와 김성태씨 같은 분들이 1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1975년도 이게 2세대라 그러면, 지금은 3세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그랬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교수님, 이즈음에 1960년대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때에, 정세문 교수님께서 2대 회장을 하실 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 특히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가 전국 교사 동료 작곡 강습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196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 때입니다. 이런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동료 작곡 강습회가 눈에 크게 띄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었는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창환 교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정세문 선생님은 모든 것

이 본이 되고 누구나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창작 동요 작곡대회라든가 그와 같은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실제로 일한 사람은 우리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드리고 그리고 회장님의 이름으로 또는 정세문 선생님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랬지만 이 실제 일꾼들은 저희들이예요.

**#사회자:** 혹시 신계휴 교수님께서는 60년대와 관련해가지고

**#신계휴 교수:** 그때는 제가 여기 인천,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전혀 모르죠. 80년대 쯤 와서 제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는 전혀 몰라요.

**#사회자:** 그러면 이 당시에, 1960년대 보통 보면 우리가 ‘어린이 행진곡’이라든지, 이런 동요들이 이때에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흥수 교수:** 내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그 동요 작곡 강습회가 참 활발했어요.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정세문 선생님이 뒷받침을 해주시고 손대엽 선생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당시에도 나운영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강습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석 선생님, 김봉선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교사들에게 동요 강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운영 선생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는 동요가 한 박자계의 동요가 많았는데 당신이 구두 발자국이라는 노래를 쓰면서부터 리듬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회상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요가 그때부터 작곡가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동요 작곡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회에서 동요 작곡에 대한 강습을 많이 하면서 교사들이 동요를 작곡하기 시작해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화성학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학회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연수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그 리라초등학교나, 송의초등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연수회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이 그 음악교육에 대한 강연을 듣고, 화성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장창환 교수:** 거기에 이어서 강습회라든가 대회를 하는데,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대한교연에서 각 교과별로 연구대회를 했어요. 그 연구대회를 하는 통에 음악교육에서도 연구부를 만들어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평가받으면 푸른 기장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열기들이 달아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음악교육도 학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강습회는 좀 줄어들었지만 연구대회를 통해서 일보 전진했죠.

**#사회자:** 네. 신계휴 교수님께서는, 그 후?

**#신계휴 교수:** 네. 저는 그 80년대부터 관여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학회라는 이름보다는 연구회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수준이었어요. 수준만이 아니라 그 활동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같이 무슨 강습회, 연수회. 그러던 것이 그래도 좀 학회라는 이름으로 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학회다워질 것인가 해서 연구의 기초를, 연수를 물론 계속 해야 하지만 연구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연구 방법 세미나 같은 것도 해보고, 더러는 그 교육학 하는 분들 중에서 연구와 관련된 특강도 좀 부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씩 하던 것하다가 그런 것을 좀 더 가미하기 시작한 때가 8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때에 우리 음악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음악교육에는 참 앞서갔지만, 음악교육학이라는 분야는 아직 초보단계였기 때문에 이쪽 교육학 쪽이나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받는 이런 때에, 외국에서 음악교육학 박사를 하면서 대거 들어옵니다. 물론 이홍수 교수를 필두로 해서 지금의 학회를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학위를, 불모지인 우리 한국에 음악교육학 박사들이 막 대거 들어올 때예요. 이럴 때 무언가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주면 음악교육학이라는 것이 빨리빨리 클 것 같으니까 논문집은 물론이고 이런 발표회, 세미나 같은 것들을 비교적 원활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텐데, 때맞추어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지원금이, 그 전에는 전부가 이제 그 회원들 주머니로만 해결하던 것을 그런 학술 진흥재단에서 지원도 좀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태동하기 시작한 때. 지금은 어느 정도 학회가 완전히 이제 뭐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아주 그 초창기에 학회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도 노력할 때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지금의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박사들이 그때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회로서 면모를 갖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는 연구의 수준에서 한국의 음악교육을 굉장히 애써, 그래도 우리 이 단체가 현장에다가 그런 공헌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 거기다 없어서, 학술적인 풍토와 분위기를,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80년대고, 해가 바뀌면서 기틀을 완전히, 뭐 ‘완전히’라는 단어가 어폐가 있겠지만, 상당히 구색을 갖추어 학회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국제 활동서부터 뭐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보아도 그 당시 음악교육학 박사과정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니까, 석사 좀 했었고 그런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이 생길 정도로 활발해 졌다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애쓴 분들의 공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어요.

**#사회자:** 60년대와 관련해서 교수님, 더 말씀하실 것이..?

**#이홍수 교수:** 그 연구회에서 학회로 넘어가던 시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장창환 교수:** 연구회가 ISME 이후로 연구를 만들었는데 ISME는 젊은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가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에 두 부류의 단체가 생겼어요. 음악교육협의회, 그거는 ISME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음악교육학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1집 논문집이 나올 때부터가 학회라고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그 논문을 쓰면, 교수들은 논문을 하나씩 써야하니까, 논문 하나 쓰면은 일 년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것이 뭐 무슨 그런 학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별로 관심세력이 없었는데 대학이, 대학원도 생기면서 논문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학회라고 해야 논문도 인정을 받았어요. 학회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무집에 불과하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학회라고 하면 비로소 그것은 논문으로 인정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나도 다른 교과는 이미 학회를 다 만들었는데 음악교과는 학회라고 안했어요. 연구회라고만 했지. 그러고는 학회라고 고지해야겠다 정세문선생에게 졸랐죠. 그래가지고서 학회라고 하면서 제 1집을 내고 2집을 내고 3집을 내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얇아요. 논문 쓸 사람이 없으니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교수 승진하는데 겁을 냈죠 좀. 그러나 지금은 경쟁을 하고 심사까지 해서 모집을 받으니까 많이 발전했죠.

**#이홍수 교수:** 그때 그 교련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장창환 교수:** 교연에서는 묵인해 준거죠. 학회가, 교연 산하에서 학회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 교연 음악교육분과지. 음악교육학회라는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논문 써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학회라고 이름을 넣기 시작했죠. 근데 음악교육연구라는 타이틀을 쓰기 때문에 음악교육 연구회가 계속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논문집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학회로 만들었어요.

**#사회자:** 그러면 교수님, 그게 73년도에 음악교육연구 1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혁 정리되어있는 데는 78년에 한국음악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거든

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973년도에 논문이 발간되면서 연구회가 학회로 바뀐 겁니까?

**#장창환 교수:** 예.

**#이홍수 교수:** 거기 그 1회 논문집을 보면 알겠네.

**#장창환 교수:** 그렇지.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계휴 교수:**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었나 하면은, 80년대 와서도 학회라고는 했지만 그 학술진흥재단에 우리가 연구비 청구를 하니까 ‘구속 요건이 못 맞는다. 적어도 대학이 5개나 10개 이상 대학이고, 교수가 몇 명이래야 되는데 임원은 많은데 대학교수는 몇 명이 없다.’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원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그 위원장인 김용진 교수가 그 심사 위원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언제 발전하느냐? 여기는 특성상 초등, 중등 교사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교수들이 다 음악으로 했지 음악교육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시절이라 이렇게 해서 구속요건도 안되어 있지만 그런 바탕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미국서 박사를 해 왔지만 이분들은 아직 초기고, 그 틀을 만들어줄 건 선배들이 해 줘야 되는,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그래도 빨리 학회로서 구성이 되면서 학문적 그 바탕이 빨리 커졌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런 공헌을 했죠.

**#사회자:** 그럼 1980년대로 조금 넘어가보면, 교수님. 지금 1980년대를 보면 장창환 교수님께서 부회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986년에는 회장님으로 역임하시는 이런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면 음악 연수회 같은 것들은 개최되었지만 세미나와 음악회를 열지 못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지 못했던 다소 위축된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시대적 상황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위축될 만한 것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위축된 시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계휴 교수:** 그때 기억에...

**#사회자:** 그때 류덕희 교수님께서 회장 하실 때입니다. 84년대.

**#신계수 교수:** 어, 그때는 나도 잘 모르겠네...

**#이홍수 교수:** 기억나세요? 류덕희 교수가 회장하실 때 어땠어요? 난 그때 없었어요 한국에. 그 때 어땠어요?

**#장창환 교수:** 미국에 공부하러 갔고?

**#이홍수 교수:** 예. 저는 갔고, 그때 류덕희 선생님이 회장이실 때, 학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신계휴 교수:** 활발한 인상이 없네. 활발한 인상이 없어. 이유는 모르겠고 장 교수님이 말으면서부터 좀 내적으로 활발했어. 왜냐면은 부회장 내지 이사들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 임원들끼리라도 우선 연수를 했어요. 어떤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발표를 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내적 활동이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회보도 만들지만 그거보다도 그때 연구 방법도 그 내가 어디 보면 유인물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연구방법을 한번 내가 맡아서 강의한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현장에 관한 문제점 또는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내적인 활동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장창환 교수님 회장할 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박사들이 한꺼번에, 이홍수 교수가 들어오시면서 지금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바로 들어오면서 확 그 기반이 달라졌죠.

**#사회자:** 그러면 다소 류덕희 교수님께서 회장 역임하실 때는 조금 위축된 시기였네요?

**#신계휴 교수:** 위축인지는 모르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사회자:** 네. 그러다가 1986년에 장창환 교수님께서 다시 이제 회장하시고 이제 신계휴 교수님께서 부회장님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복간이 되어지고

새로운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신계휴 교수:**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기억이 나요, 부회장을 맡으면서. 장창환 교수님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하려고하는 내용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홍수 교수:** 인천교대 강당에서도 하고.

**#신계휴 교수:** 거기서도 하고. 저기 어디 수원.

**#이홍수 교수:** 수원 매산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신계휴 교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 학교마다의 실정도 파악하면서 음악교육의 현실도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사회자:** 그리고 교수님, 80년대 후반에 보니까 여기 보면 칼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념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어떤 이론과 실천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80년대 후반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분위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휴 교수:** 이론상으로는 그 교과서도 보면 알지만, 아주 그 전부터 도입을 했죠, 정세문 선생님이.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했지 외국 교류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 것이 그때부터는 교류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직접 갔다가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보는, 문헌적으로는 벌써 우리 초기부터 했어요. 거의 1집부터, 그 교과서 초창기부터 정세문 선생님이 교과서 만들 때부터 그걸 하셨죠.

**#장창환 교수:** 우리가 신 교수 때까지 올 때는 국내적으로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홍수 교수가 오면서부터 국제화되었죠. 그런 시대가 오게끔 된 것이지. 실제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외국 사람들에다가 같이 강습회도 하고.

**#신계휴 교수:** 거기에 있는 순 ??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교육을 많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대학인데, 그 전까지는 2년제였기 때문에 교육대학도 그렇게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4년제가 되면서, 80년대 초에 그러면서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바탕에 조금씩 생기는 거죠 더. 그런 사회적 배경과

또 외국에서 학위를 해오는 인재들, 이런 것들이 함께 되면서 80년 중반부터는 좀 더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봐 주면 되겠어요. 경제발전과 함께 그런 것들이.

**#사회자:** 근데 우리 교수님 세분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음악 교육학회의 어떤 실태와 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음악교육의 현실의 주소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계휴 교수:** 제가 이제 서두만 하면 또 상세한 것은 이 교수님께서 잘 하실 테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회비만 가지고 뭘 할래도 많이 할 수는 없고, 어떤 프린트 하나도 어려웠어요. 복사기도 없을 때니까. 그걸 리라에서 장소를 빌리고 거기서 복사기, 종이까지 다 얻어 쓰던 그런 지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선학교의 그 부회장님들이 교장으로 계시던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콘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이 무더운 때, 아주 열악한 때 그 선생님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참 그런 밑바탕이 오늘을 만들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학회는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현장교육은 그때만 못한 것 같아요. 전부가 그 리모컨으로 끝내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몸으로 직접, 학생과 선생이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커가고 있는데 교육적으로는 현장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되고 있죠.

**#사회자:** 네. 장창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창환 교수:** 음악 박사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음악박사 그러면은 거의 없었죠. 계정식씨 밖에 없었어요. 계정식이라고 하는 옛날 음악가가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집하는데 부터 ‘음악박사여야만 된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음악박사가 또 실제로 많고, 그게 음악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박사들은 박사님들이니까 개인적인 주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좀 더 한--인 음악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박사들이 좀 더 희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논문 하나 써가지고선 ‘박사 됐다, 내 grade는 박사다.’ 이 기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얻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좀 차원이 달라졌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이홍수 교수:**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심부름하면서 학회 일을 시작을 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갖추어 놓은 그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숙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회장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젊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학자들이 귀국해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고 그리고 우리 학회의 연구회라든가 연수회의 새로운 얼굴의 강사가 많아졌죠. 그게 특징의 하나고, 두 번째는 교원대와 교육대, 사범대에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음악교육학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교원들의 학구열이 높아지고, 또 학회참여교사가 대폭 증가하면서 1998년경에는 한 1000명이 되었어요 회원이요. 그 정도로 열기가 대단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1992년에 우리 서울에서 세계음악교육자 대회, ISME가 열리면서 우리 학회 임원들이 그 ISME 대회에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음악교육협회라는 그 협회가, 조상연 선생님이 하던 그 협회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활동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회 간부들이 대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진행도 보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부터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하던 세계 대회에 참여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일본의 이찌로 무라오 교수하고 호주의 게리 백펠슨 교수, 캐나다의 로버트 워커 교수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아시아-태평양 지부 음악교육연구 심포지엄을 열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1997년에 제 1차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호주, 일본, 홍콩 등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그러면서 외국 학자들과 우리나라 교수들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1990년대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좀 탄탄해지고 외연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발해지는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교육과정문제. 96년에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 시간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그 감소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과 전국의 교사들, 학부모들이 서명을 해서 37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적정화에 관한 진정서를 청와대,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발원에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한편 또 우리 학회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KBS, MBC, SBS에다가 방송의 질을 좀 높여 달라, 예술음악, 한국 음악 중심으로 방송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중학교 시수가 감소되고 고등학교 이수 단위가 축소되고 그런 일도 있어서 음악교육자 단체 협의회를 조직해서 2003년에는 음악교육정상화결의대회도 열구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시 이제 2000년대까지 계속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음악교육학회가 지금 상당히 학문적으로나 학교 현장의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궤도에 올라서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교대 사대 교수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음악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좀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악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또는 우리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가꾸어 주는, 정신을 높이고 가슴을 채워주는 그 일, 높은 이상을 갖게 하고 바른 품성을 갖게 하는 그 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교수들은 핵심역량 운운하면서 지식과 정보, 능력 갖추어 주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학문학문 그러면서 학회를 양분하게 만드는 그런 동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교수들에게 젊은 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음악교육의 본유의 소명이 있고 시대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간에 음악교육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본유의 소명이 있고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본유의 소명과 시대적 요구를 잘 조정해가면서 ‘학문과 적용, 그건 동전의 양면이다. 지식능력과 인성, 동전의 양면이다. 교수와 교사 동일하게 음악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교수 따로 학문하고 교사 따로 적용 하는 게 아니다. 교수와 교사는 늘 함께 가야한다. 지식능력과 인성은 함께 가야한다. 학문과 적용은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회를 이끌어 가야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교수 분들에게 또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이 학문과 적용을 따로 생각하지 마라, 학문은 적용을 위한 것이고 적용은 반드시 학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학교를 눈여겨보고 교사들은 학문을 눈여겨보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 학회가 발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야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회자:** 장창환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학회라든지 후배 학자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창환 교수:** 우리나라에도 학회와 유사한 것이 세 개 있습니다. ISME 회비를 납부한다고 해서 음악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생겨져 있는데 이용현 교수가 고집하고 있어요. 또 윤양선씨가 중심이 되어서 음악교육회라고 하는 것이 또 움직이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음악 교육 학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의 음악교육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날씨도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기념사진



[Figure 2] Professor Hongsoo Lee, Changhwan Chang, professor Gye-Hyu Shin, and professor Gi-Su Kim, from the left